

吳澐의 『竹牖先生文集』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ollection of Jukyoo's Works Written by O Un

김 순 희 (Kim, Soon-Hee)*

◁ 목 차 ▷

1. 서 론	2.4 甲申本
2. 「竹牖先生文集」 편찬 및 간행 경위	3. 「竹牖先生文集」의 구성 및 특징
2.1 「栗溪亂稿」	3.1 시문
2.2 榮川本	3.2 잡저
2.3 崔興壁 刪定本	4. 결 론
	<참고문헌>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조의 중요한 도서출판자였던 竹牖 吳澐(1540~1627)의 개인 문집인 『竹牖先生文集』을 검토하여 간행 경위와 구성 및 체제를 밝힘으로써 이 문집의 가치와 의의를 조명하였다. 『竹牖先生文集』을 통하여 도서편찬자로서의 오운의 면모와 문인으로서의 오운의 면모를 동시에 살필 수 있다. 『竹牖先生文集』의 구성을 살펴보면 조선조 문집들의 전형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권 1과 권 4까지의 詩文과 雜著는 오운이 직접 지은 것이고, 나머지는 후손들이 문집을 편찬하면서 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竹牖先生文集』의 편찬과 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문집 발간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要語: 『竹牖先生文集』, 竹牖, 吳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0년 12월 8일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27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potlight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Collection of Jukyous works* written by O Un who was a publisher in the Joseon Dynasty, by reviewing the motivation of its publication, and its structure and format. With *the Collection of Jukyous Works*, O Un's true personality both as a compiler and an author can be well observed. *The Collection of Jukyous Works* has a typical structure of an anthology in the Joseon Dynasty. Volume 1 through 4 contained proses, poems, and miscellaneous writings by O Un, and the rest was compiled and supplemented by his descendants. By thoroughly examining the process of publishing and compiling *the Collection of Jukyous Works*, one can understand better the real aspects of anthology publication in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Collection of Jukyous works*, Jukyous, O Un

1. 서론

이 연구는 조선조의 중요한 도서출판자였던 竹牖 吳澐(1540~1627)의 개인 문집인 『竹牖先生文集』을 검토하여 간행 경위와 구성 및 체재를 밝힘으로써 이 문집의 가치와 의의를 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오운의 도서 편찬에 관해 지속적으로 고찰해 왔다.¹⁾ 이 작업을 일단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문집을 고찰하는 일이 필요성이 자연히 제기되었다. 이것은 도서편찬자로서의 오운의 면모와 문인으로서의 오운의 면모를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오운은 일평생동안 도서와 더불어 살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도서를 애호하였으며, 교정과 편집, 편찬과 간행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오운은 정작 자신의 문집을 치밀하게 정리해 놓지는 않았다. 오운은 자신이 지은 詩文의 일부를 『栗溪亂稿』라는 제목으로 남겨 놓았을 뿐이다.²⁾

이러한 이유는 시대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오운은 53세였다. 의병장으로도 활약했던 오운이 난후의 어수선한 형편에서 자신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원고를 정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³⁾ 그리고 오운의 가문에 재앙이 없지 않아⁴⁾ 후손들이 겨우 『栗溪亂稿』를 보전하였을 뿐이다.

오운이 세상을 뜬 후 156년만인 1783(癸卯)년에 후손들이 오운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한 公議가 일어나 문집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때 정리된 것이 榮川本이다. 그러나 이 영천본은 간행되지 못하고, 이후 1854(甲申)년에 문집을 다시 한 번 정비하여 목판으로 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高敞吳氏

1) 김순희, “오운의 『東史纂要』의 서지학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393-420.

_____, “오운과 『咸州志』,” 『書誌學研究』 제29집(2004. 12), 476-498.

_____, “竹牖 오운의 『圃隱集』 교정에 대하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337-359.

_____, “죽유 오운의 학문과 저술세계,” 『書誌學研究』 제41집(2008. 12), 473-493.

_____, “이우의 『송재선생문집』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45집(2010. 6), 215-233.

2) 오운은 竹牖, 栗溪, 白巖 등의 호를 사용했다.

3) 『竹牖先生文集』附錄 下 「行狀」. “所著詩文 散失於亂離殆盡 只栗溪亂稿二卷 藏于家.”

4) 李紱, 『竹牖先生文集序』. “家禍不幸而事多.”

문중에서 1983년에 오운의 역사서인 『東史纂要』와 『竹牖先生文集』(甲申本)을 합본하여 『竹牖全書』라는 제목의 영인본을 출간하였다.⁵⁾

오운의 문집은 한국 문집 간행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따라서 『竹牖先生文集』의 편찬과 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문집 발간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竹牖先生文集」 편찬 및 간행 경위

2.1 「栗溪亂稿」

오운의 문집이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오운이 생전에 직접 정리한 『栗溪亂稿』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운은 63세 되던 해인 1601(辛丑)년에 영천으로 돌아왔다.⁶⁾ 이 해는 오운의 인생에서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 이 해에 오운은 관직에서 사퇴하고⁷⁾ 향리에서 우거하면서 송대의 신유학자인 濂溪 周敦頤의 고사를 인용하여 栗溪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오운은 더욱 독서에 몰두하였으며 틈이 나는 대로 도서를 정리하게 되었다.⁸⁾ 이러한 과정에서 오운은 자연히 그동안의 시문을 모아 『栗溪亂稿』 2권을 편집하게 되었다.

오운이 『栗溪亂稿』를 정리하게 된 사실을 입증하는 문장이 「題金剛行錄後」이다. 오운은 귀향한 다음 해인 1602(壬寅)년에 이 글을 지었다. 제목에서도 알

5) 竹牖全書刊行會, 1983, 大韓印刷所.

6) 오운은 咸安에서 태어나 의령으로 이거하였고 만년에는 경북 영주로 이주하여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

7) 오운은 이후에도 69세에 경주부윤이 되었으나 7개월 만에 체직하고 돌아가던 직전 해인 77세에 청송부사로 부임했으나 이 역시 4개월 만에 물러났으니 그의 관직생활은 이때에 사실상 마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8) 『竹牖先生文集』 「年譜」, 辛丑年條. “自寓居榮川松楸 一念未嘗少弛 取周濂溪鄉山在目中 中之義 自號栗溪 栗溪乃先生先世舊居也 歸田之後 耽書自娛 手不釋卷 老愈不倦 尤好讀周易朱子大全.”

수 있듯이 이것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지은 시를 모아 놓은 뒤에 배경과 감회를 적은 글이다.

이 금강행록은 지난 辛巳 년간에 桃園(강원도 旌善의 옛 이름)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잠깐 사이에 20여 년이나 지나서 옛 자취가 아득하니 머리를 돌려 옛날의 유람을 생각해 보니 다만 瑤池의 꿈일 뿐만이 아니로다.

지난 해 가을 용담주인 任屹(字 卓爾)가 이것을 보내주었는데 종이 한 장도 떨어진 것을 알 수 없으니 난리 중에도 어떻게 이리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는가.⁹⁾

오운은 42세이던 1581(辛巳)년에 정선군수로 부임하여 다음 해까지 금강산을 유람하였는데 이때 지은 시를 모아 『金剛行錄』이라 이름하고 필사하여 보관하였다.¹⁰⁾ 그런데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인지 任屹(1557~1620)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오운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임흠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으며 난후에는 당쟁에 실망하여 관직을 포기하고 낙향하여 학문에 전념한 인물이다. 임흠이 嘯臯 朴承任(1517~1586)과 寒岡 鄭述(1543~1620)의 문인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그가 오운이 지은 『金剛行錄』을 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박승임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서 학문으로 명망을 얻은 인물이다. 같은 퇴계 문하라는 인연으로 오운은 박승임의 문집을 교정하기도 했다.¹¹⁾ 그리고 鄭述는 오운과 함께 『咸州志』를 편찬한 관계이므로 이를 통해 오운과 임흠의 사이를 추정할 수 있다.

임흠에게 「금강행록」을 받은 뒤 오운은 이것을 『栗溪亂稿』에 포함시켰다. 『竹牖先生文集』에는 이 「金剛行錄」이 卷之一에 수록되어 있다. 첫 작품은 「桃園仲春雪後贈寧越儒士洪仁浹高宗慶二首」인데 狹注로 「辛巳 此下關東錄」이라고 부기되어 있으며, 끝 작품은 「陪方伯小集錦江亭次韻」으로 모두 31題 36首이다.

9) 『竹牖先生文集』 卷3, 「題金剛行錄後」. “右金剛行錄 往在辛巳年間 在桃園日所寫 俛仰二十年餘 陳跡杳然 回首舊遊 不但如瑤池一夢而已 上年秋 龍潭主人任卓爾 寄此一紙不知落 自何方尙得瓦全於亂離也.”

10) 『竹牖先生文集』 「年譜」, 辛巳年條. “是歲除旌善郡守 三月遊金剛山 有關東錄.”

11) 『竹牖先生文集』 「年譜」, 庚子年條. “六月 校正嘯臯朴公文集于伊山書院.”

이러한 사정에서 추론해 볼 때 이때부터 오운이 본격적으로 문집의 정리를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운은 도서전문가답게 문집의 정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오운은 시를 수록하면서 시대순으로 배열하였으며, 기록이 필요한 내용은 狹注로 부기하였다. 이것은 오운이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문집에 수록된 첫 번째 시인 『次朴監司啓賢紫溪十六詠韻』에 이러한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시는 朴啓賢(1524~1580)이 紫溪에서 지은 시 16수에 오운이 차운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계현이 아니라 紫溪이다. 자계는 경북 경주에 있는 계곡인데 조선중기 영남사람의 대학자인 晦齋 李彥迪(1491~1553)이 관직에서 물러나와 고향인 경주의 자계에 獨樂堂을 짓고 만년을 보냈다. 이언적은 영남사람의 상징적 존재로서 오운이 흠모하였을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된다. 경주를 방문한 오운이 이언적을 추모하면서 감회를 읊은 작품이 이시이다. 오운은 이언적의 서재인 독락당을 중심으로 시의 소재가 된 16곳의 위치를 설명했다. 예를 들면 紫玉山은 ‘在獨樂堂右’, 舞鶴山은 ‘在獨樂堂之南’, 淨慧寺는 ‘自獨樂堂纔一里’ 등으로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위 연작시 중의 하나인 『溪亭』의 題下에 협주로 독락당 뒤와 이 정자의 앞뒤에 심은 소나무와 대나무는 모두 이언적이 손수 심은 것임을 밝혔다.¹²⁾ 그리고 『淨慧寺』라는 시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협주가 있다.

절의 창에 선생이 손으로 쓴 ‘계곡이 깊으니 물고기가 거울을 희롱하고 산이 어두우니 새가 연기에 미혹되네(澗深魚戲鏡 山暝鳥迷煙)’라는 구절이 있다.¹³⁾

『晦齋集』을 찾아보니 이 구절은 卷2의 『澄心臺卽景』이라는 五言律詩의 제3구와 4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언적이 지은 『澄心臺卽景』이라는 시의 澄心臺는 오운이 지은 위의 시 중에서는 『淨慧寺』 다음에 『澄心臺』라는 제목으

12) 『竹牖先生文集』 卷1, 『溪亭』. “在堂後亭之前後 植以松竹 皆先生手植.”

13) 『竹牖先生文集』 卷1, 『淨慧寺』. “寺窓有先生手寫 澗深魚戲鏡 山暝鳥迷煙之句.”

로 실려 있으며, 제목 아래의 협주에 이 절 앞이 가장 아름답다고 기록하였으니¹⁴⁾ 이언적이 정혜사의 창가에서 정심대를 바라보며 이 시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혜사의 창가에 쓰인 이언적의 필체를 보고 이것을 기억했다가 협주로 기록한 오운의 치밀한 자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운의 기록 방식은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文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을 협주로 기록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書李牧隱罪三帥教書後』에서는 牧隱 李穡이 지은 교서의 일부를 인용하여 협주로 보완하였다.¹⁵⁾ 그리고 이어서 『書牧隱元巖讌集唱和詩書後』에서도 『牧隱集』을 인용하여 해설을 첨부했다.¹⁶⁾

『竹牖先生文集』에 실린 오운의 시를 보면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送東浦令公入洛仍作赴京之行』인데 그의 나이 74세 때이다. 이로 보아 오운은 말년까지 지속적으로 문집의 정리를 계속했음을 알 수 있다.

2.2 榮川本

오운의 死後 『栗溪亂稿』는 집안에 대대로 보관되어 전해졌다. 후손들은 오운의 문집이 체재를 갖추지 못하고 유고가 완전히 모아지지 못함을 애석히 여기다가 7세손인 吳命顯(字 達卿, 1731~1768)이 본격적으로 문집의 편찬을 담당하였다.

후손 달경이 개연히 이어 서술하고 모으고자 하는 뜻이 있어 영친과 禮安을 왕래하며 명승지와 고택을 널리 찾아 선세에 소장하던 것을 증명하여 모아서 선생의 문집 약간 권을 만들었다. 또 선생의 생졸과 출처의 시종과 전말을 찾아서 연보를 편성하고 당시의 만사와 행장, 비명, 주고받은 편지 등을 뒤에 엮어서 부록이라 이름하여 초본을 겨우 완성하였다.¹⁷⁾

14) 『竹牖先生文集』 卷1, 「澄心臺」. “在寺前 最爲佳境.”

15) 李穡(高麗) 著, 『牧隱集』 卷11, 「罪三元帥教書」.

16) 위책, 卷9, 「元巖讌集唱和詩序」.

17) 崔興壁, 「竹牖先生文集跋」. “後孫達卿 慨然有繼述哀集之意 往來榮禮間 諸名勝古家舊宅 廣披博訪 證以先世所藏 彙爲先生文集若干卷 又求先生生卒出處 始終顛末 編成年譜 而係以當時輓誄狀銘 投贈簡牘於後 謂之附錄 草本纔具.”

그러나 오명현은 문집을 간행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역시 7세손인 吳司重(1745~1809)이 다시 한 번 누락된 자료를 수집하여 오운의 문집을 정리하였다.

선생의 7세손인 오사중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황급히 조금이라도 구하려 하였으나 얻지 못하자 분주히 수습하여 한마디 말이나 한 글자라도 선생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널리 찾아서 『栗溪亂稿』의 뒤에 붙여 놓아 간략하게나마 편질을 완성하였으니 모두 약간의 권이었다.¹⁸⁾

오사중은 篇帙이 완성되자 李級(1721~1790)에게 문집의 서문을 부탁하였다. 이급은 문과급제하여 사간원 정언을 지낸 인물로 본관은 眞城이다. 이급이 퇴계 이황의 형인 李滄(1496~1550)의 7세손이니 고창오씨와 진성이씨의 오랜 世誼를 알 수 있다. 오사중은 진성이씨의 하나인 李守定에게도 서문을 부탁하였다. 이급과 이수정이 쓴 서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오사중은 이 문집을 淨寫하여 간행을 준비하였으니, 이것이 영친본이다. 그러나 오사중은 끝내 오운의 문집을 간행하지는 못했다.

오사중은 선조의 저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인물로 『牟陽世稿』를 편집하기도 했다. 『牟陽世稿』는 吳司重이 편찬하였으나 간행이 이루어진 것은 1897년이다.

고창오씨는 대대로 문장가들이 있다. 후손 사중씨가 모아서 원고를 만들어 世稿라 이름하였으니 대개 삼우대공에서부터 이계공까지 6세9공이다.¹⁹⁾

『牟陽世稿』에 관심이 가는 것은 이 책의 서문을 이급과 이수정이 썼기 때문이다. 오사중은 『竹牖先生文集』을 먼저 정리하고 이어 『牟陽世稿』를 편집하였다.

18) 李級, 『竹牖先生文集序』, “先生七世孫司重氏 爲是之懼 皇皇焉少有求 而不得 奔走收拾 凡係片言隻字 關先生者 廣披博 訪 以附栗溪亂稿之後 粗成篇帙 總若干卷.”

19) 李守定, 『牟陽世稿序』, “高敞吳氏世有文章 後孫司重甫彙爲一稿曰世稿 蓋自三友臺公至 伊溪公凡六世九公.”

후손 오사증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없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죽유선생 집을 편집하였다.²⁰⁾

오사증은 선조의 저술에 대해 대단한 애착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을 편집하여 간행을 준비했다. 다음의 인용에 그의 정성이 잘 나타나 있다.

일찍이 선조의 유문을 모아 삼우공에서부터 이계공까지 6세의 글을 모아 세고라고 이름하였다. 그런데 낙애공의 글과 한계공의 행위는 마땅히 그 중에 빠뜨리지 말아야 했는데, 다만 그 유문이 본가에 보관되어 있고 거리가 수 백리여서 실을 수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놓은 이공의 서문과 두암 김공의 발문이 다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을 한탄하다가 갑진년 봄에 드디어 남쪽 고령으로 내려가 두 공의 시문 약간 편을 얻어 낙애공은 경암공의 위에 추가로 붙여놓고 한계공은 이계공의 아래에 붙여놓았으니 세대의 차례를 따른 것이다.²¹⁾

오사증은 이처럼 선조의 유문을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노력했다. 오운의 문집도 오사증이 편집한 것을 기초로 하여 후에 간행될 수 있었으니, 오사증은 문집의 간행에 매우 큰 공헌이 있는 인물로 평가할 수 있겠다.

2.3 崔興璧 刪定本

이후 영천본은 문중에 보관되어 오다가 다시 한 번 교정과 산정의 작업이 시도되었다. 6세손 吳厚相이 蠹窩 崔興璧(1739~1812)에게 刪定을 부탁하여, 최흥벽이 영천의 문중 사람들과 함께 산정하였다. 최흥벽은 문집의 출간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문집의 산정을 완성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 최흥벽에 의해 『竹牖先生文集』은 완전하게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흥벽은 영남의 달성과 고령에서 활동하던 문인이었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20) 李紱, 『牟陽世稿序』. “其後孫司重氏 懼其愈遠而愈致泯滅也 爲編成竹牖先生集.”

21) 吳司重, 『牟陽世稿跋』. “竊嘗 哀稔 先世遺文 自三友公至伊溪公 凡六世 合而目之曰世稿 而洛厓公之藻翰 寒溪公之行誼 不當漏於其中 第其遺文藏於本家 去數百里之遙 未得載錄 以此 壘隱李公之序 斗庵金公之跋 皆不及焉 以是爲恨 歲甲辰春 遂南下高靈 搜出二公詩文若干篇 洛厓公則追附於敬庵公之上 寒溪公則 追附於伊溪公之下 從世次也.”

끝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蠹窩文集』 17권 8책을 남겨 놓은 학자이자 문인이었다. 최흥벽이 고창오씨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부인이 오운의 후손인 舍人 吳季晫의 따님이기 때문이다.²²⁾

최흥벽은 『栗溪遺稿』를 직접 보았다. 어느 날 그가 오명현의 조부인 大隱翁을 예방하였는데 大隱이 이 유고를 보여주었다.²³⁾ 이러한 일이 있고난 이후에 최흥벽은 고창오씨 가문의 도서 편찬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兩世遺墨』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오운과 오운의 둘째 아들인 敬菴 吳汝櫟(1579~1635)의 遺墨을 편집한 것으로 지금 『竹牖全書』에 실려 있다. 최흥벽은 『兩世遺墨』의 서문을 썼으며 이어 『次東坡墨妙亭韻題竹牖敬菴兩先生遺墨帖』이라는 제목으로 168자에 달하는 긴 七言排律을 지어 놓았다. 최흥벽은 두 사람의 글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론하여 서예에 대한 안목을 보여주기도 했다.

선생 부자는 모두 글씨로 이름 있었으니 왕희지의 집안에 어찌 양보할 수 있으리오. 이것은 다만 그 나머지고 본래는 이것보다 더 많다. 그 글씨에 대해 평한다면 ‘수척하고 고고하여 마치 큰 소나무와 늙은 회나무가 꺾질이 다 벗겨지고 줄기가 드러남 같은 것은 죽유의 글씨이고, 질고 고와서 움직이는 것 같아 마치 푸른 등나무와 담쟁이가 가지가 얽히고 그림자가 뻗뻗한 것 같은 것은 경암의 글씨이다.’²⁴⁾

최흥벽은 오명현이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명현이 문집을 간행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아쉬워하던 차에 오운의 6세손인 吳厚相이 吳司重이 淨寫한 영친본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산정을 부탁하였다.

하루는 사문 오후상씨가 선생의 문집과 연보를 정사한 본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문중의 오사중이 영친의 여러 사후들과 수정한 것인데, 정언 이급에게 서문을 구하였다. 원컨대 그대가 다시 자세하게 해주기

22) 김영숙, “蠹窩 崔興璧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학논집』 제39집(2009), 68.

23) 崔興璧, 『竹牖先生文集跋』. “嘗記昔年余拜大隱翁 翁爲出所謂栗溪亂稿者 一冊示余.”

24) 崔興璧, 『兩世遺墨序』. “先生父子俱以筆名 卽與右軍家奚讓 然此特其餘 本之則有大焉 姑就其筆而評之 瘦瘠高古 如長松老檜 皮盡而骨露者 竹牖筆也 濃麗活動 如蒼藤碧蘿 枝交而葉密者 敬菴筆也.”

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내가 여러 번 사양했으나 마침내 얻지 못하고 삼가 받아서 일을 마쳤다. 대개 영천본은 달경의 구본에 위 아래로 조금 더하고 빼서 체재와 규모가 더욱 밀접해졌다. 다만 한탄스러운 것은 그 사이에 아직도 자못 우연히 잃어버리고 소루한 것이 있어서 올바른에 미치지 못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이 있다는 것이다. 문득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드디어 오장삼과 더불어 달경의 구본을 취하여 옆으로 여러 사람들의 믿을만한 글을 채집하며 혹은 첨가하고 보충한 곳이 있고 혹은 뺀 곳이 있어서 영천본과 비교해보니 대동소이하다.²⁵⁾

이러한 과정을 살펴 볼 때 『竹牖先生文集』은 최흥벽의 손에서 교정 및 편집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흥벽은 처가의 선조가 남긴 문집이지만 최선을 다해 정리함으로써 지금의 이 문집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니 그가 『竹牖先生文集』의 간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공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4 甲申本

오운의 8세손인 吳慶鼎이 최흥벽이 산정한 문집을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 1824(甲申)년이다. 오경정은 최흥벽의 발문과 韓光善의 발문을 첨부하여 간행함으로써 오운의 문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광선은 久菴 韓百謙(1552~1615)의 후손으로 오경정의 부탁을 받아 발문을 쓰게 되었다. 한백겸은 오운의 『東史纂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학자이다.²⁶⁾ 이 인연으로 인해 두 집안 사이에 관계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오경정이 발문을 부탁하면서 오운과 한백겸의 관계를 언급하였고, 한백겸도 같은 이유로 발문을 지었음을 밝혔다.²⁷⁾ 한광선은

25) 崔興璧, 「竹牖先生文集跋」. “一日 吳斯文厚相氏 賚先生文集季譜 淨寫一本 來援余且諗之 曰 此乃族君司重典榮之諸士友所修正 而求序於李正言級甫者 願吾子之更有以詳之也 余累辭而終不獲 則謹受而卒業焉 蓋榮本以達慶舊本稍爲之 增損上下 而體裁規撫 則尤加密焉 第恨其間猶頗有偶失照管而疏漏 未及釐正 而訛舛者 輒不自揆 遂與吳丈參取 達慶舊本 旁採諸家信筆 或有添補處 或有剋減處 視諸榮本 則大同小異焉.”

26) 김순희, “오운의 「東史纂要」의 서지학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참조.

27) 韓光善, 「竹牖先生文集跋」. “公之孫慶鼎氏以其巾衍所藏 彙而成帙圖 所以不朽 一日訪余曰 吾先集且成矣 君以久庵之孫 可無一言於此 余敬以復之曰 余雖不文 留名編末 不害爲爲講世好云爾.”

오경정이 조직한 梅村洞約의 서문을 쓰기도 했다.

매촌동약은 오씨가 세거하던 매촌동의 洞約으로 1805에 오경정이 결성하여 1822년에 편성하였다. 여기에 당시 고령현감이었던 한광선이 1822년에 洞約小序를 썼으니 문집이 간행되기 2년 전이다. 추측컨대 오경정과 한광선은 이때부터 교류하였으며 이로 인해 문집의 발문을 짓게 되었을 것이다.

목판으로 간행된 갑신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竹牖先生文集 / 吳澐(1540-1627)著. 木版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824.
6卷3冊: 四周雙邊, 半廓 20.4×15.6cm. 10行 20字, 注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 30.5×20.0cm.



<그림 1> 『竹牖先生文集』 권지1의 1장(국립중앙 소장본)

3. 「竹牖先生文集」의 구성 및 특징

『竹牖先生文集』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序: 李級, 李守定
目錄
卷1-2 詩
卷3 疏, 書, 序, 記, 跋, 祭文
卷4 行蹟, 墓碣銘, 墓誌, 墓表, 雜著
卷5 世系圖, 年譜, 附錄 上
卷6 附錄 下
跋: 崔興壁, 韓光善

이 문집은 조선조 문집들의 전형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권 1과 권 4까지의 詩文과 雜著는 오운이 직접 지은 것이고, 나머지는 후손들이 문집을 편찬하면서 보완한 것이다. 특히 목록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아마도 최흥벽이 정리했을 것이다.

3.1 시문

문집의 권1~2는 詩인데 총 137題 229首이며,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29세(戊辰) 때에 지은 「次朴監司紫溪十六詠韻」부터 74세(癸丑) 때까지 지은 것이 수록되어 있다. 오운의 시는 興과 浪漫主義的 성격이 있다고 평가되었으며,²⁸⁾ 심성수양과 자아성찰, 산수에 대한 애호와 탈속의 지향, 전란으로 인한 상흔의 시화, 퇴계정신의 환기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되었다.²⁹⁾

서지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오운의 문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序跋이다. 오운은 3개의 서문과 11개의 발문을 남겨 놓았는데, 이를 보면 도서편찬가로서의 오운의 진면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28) 鄭羽洛, 吳澐의 詩世界에 나타난 興과 浪漫主義的 性格,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세계』, (역락, 2007), 163-203.

29) 조규익, 이성훈, 박동욱, 『고창오씨 문중의 인물들과 정신세계』 (학고방, 2009), 311-337.

『眞城李氏族譜序』는 오운의 나이 61세인 庚子년에 지은 것이다. 이 해 5월에 『退溪先生文集』의 간행을 마치고 도산서원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오운은 이 서문에서 진성이씨의 외손으로서 진성이씨가 2파로 나뉘어진 내력과 족보를 간행하게 된 경위, 간행의 책임자 등을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족보를 간행하는 뜻을 어기지 말라는 교훈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 서문을 쓴 것은 1600년 6월이었다.

오운의 서발류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書金鶴峯龍蛇事蹟後』이다. 이 발문은 『龍蛇日記』³⁰⁾에 대한 것이다. 『龍蛇日記』는 임진왜란 때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鶴峯 金誠一(1538~1593)의 난중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다. 김성일은 진주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으나 순국하였다. 이 일기를 기록한 인물은 松巖 李魯(1544~1598)이다. 이로는 남명 조식의 문하였는데 임진란 때 김성일의 막하에서 召募官으로 활약하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김성일의 행적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로의 문집인 『松巖集』을 확인해 보니 이 글이 『鶴峯金先生龍蛇事蹟』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으며, 제목하에 小字로 ‘文殊志’라 기록되어 있는데 文殊는 이로의 별호이다. 말미에는 李象靖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용사일기』는 김성일이 1590년에 정사 黃允吉의 부사로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뒤에서부터 1593년 진주에서 세상을 떠나 고향인 안동에 장례할 때까지의 일을 담담하고도 예리한 필체로 기술하였다. 특히 임진년 4월 왜란이 일어난 뒤부터 약 15개월간의 전쟁 상황이 매우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일기문학으로서도 백미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로가 『용사일기』를 집필한 것은 1597(萬曆 25, 丁酉)년 3월이니³¹⁾ 김성일의 행위가 있는 지 4년 뒤의 일이고, 오운은 1600(만력 28, 庚子)년 2월에 이 글을 썼다.³²⁾ 오운이 이 글을 쓸 때 이로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이로와 오운의 관계는

30) 『龍蛇事蹟』이라는 명칭이 우선이나, 이 문장은 일기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 많은 자료에서 일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龍蛇日記』라고 한다.

31) 李載亨 著, 『松巖集』 『鶴峯金先生龍蛇事蹟』. “萬曆二十五年赤鷄夫月之下泮 文殊散人 謹志.”

32) 『竹牖先生文集』 『書金鶴峯龍蛇事蹟後』. “萬曆紀元之上章困敦大壯月日 飽德散人 白巖散老 書于龜城之寓舍.”

같은 남명의 동문이었다고, 의병장으로 함께 활약한 사이이니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용사일기』에도 오운이 5차례 이상 거론되고 있다.

오운은 매우 감정이 격앙되어 이 글을 지었다. 오운은 이로가 쓴 『용사일기』가 남아 있어 김성일의 행적을 전할 수 있었음은 인정하였으나, 이로의 기록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로의 이 글이) 은연중에 野史의 遺意가 있으니 진실로 큰 글이다. 다만 그 사이에 의심스러운 곳이 없을 수 없으니 마땅히 생략해야 할 것은 도리어 자세히 쓰고, 당연히 기록해야 할 것은 빠진 것이 있다.³³⁾

그리고 오운은 이로 인해 김성일의 행적이 후대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질까 탄식하였다. 오운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이 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 책에는 몇 개의 조목에서 다른 종이를 붙인 뒤 그 위에 글씨를 써 놓은 것도 있었다. 이것은 분명 최초의 기록자가 고친 것이 아닐 것임으로 누군가가 자의에 의해서 수정한 내용이 분명할 것이다. 이로 인해 후대에 이 기록을 보는 자들이 동일한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안목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근심스러워했다.³⁴⁾

이처럼 오운은 역사나 사실의 기록에 관한 한 매우 엄격했다. 이로의와 친분을 고려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오운의 기록 방식이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명저 『東史纂要』의 저술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東史纂要序』는 오운의 역저인 『東史纂要』의 서문이다. 임진란 이후 우거하면서 단군조선부터 고려 공양왕까지에 이르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였다. 오운은 서문에서 특별히 叛賊과 權胤을 별도로 묶어³⁵⁾ 서술한 이유를 밝혀 편찬의 의도가 후대의 경계에 있음을 명확하게 말했다.

33) 『竹牖先生文集』 『書金鶴峯龍蛇事蹟後』. “隱然有野史之遺意 眞鉅筆也 第於其間 不能無可疑處 或有宜略而反詳者 有當錄而見漏者.”

34) 『竹牖先生文集』 『書金鶴峯龍蛇事蹟後』. “數條逐處記之 旋見卷中 曾有粘紙而隱括 追竊處 所見先獲 不知何人所爲 恐後之覽者 混視一手.”

35) 『東史纂要』를 살펴보면 권16에 ‘叛賊 權胤’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韓歐蘇詩卷跋』은 오운이 편집한 것은 아니다. 이 시권은 오운의 조부 竹塢 吳彥毅가 韓愈와 歐陽脩, 蘇軾의 시 중에서 詩學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을 골라 필사한 것으로 오운이 서문을 쓸 때 이미 책으로 엮은 지 68년이 되었다. 오운의는 이황의 숙부인 松齋 李堦의 사위였으므로 이로 인해 오운이 퇴계문하에서 유학하게 되었다. 오운은 어려서 사촌들과 함께 읽으면서 자랐는데 사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임진란의 와중에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전적이 대부분 망실되어 이 시권의 존재여부조차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8세가 되어 다시 접하게 되었으므로 감회를 금할 수 없어 이 서문을 쓰게 되었다. 오운은 이 시권이 낡은 것을 보고 손수 풀칠하고 배접하여 2책으로 만들고 색깔 있는 비단으로 테두리를 장식하였다.³⁶⁾ 여기에서 도서를 진심으로 애호하는 오운의 자세를 볼 수 있다.

『書朴子澄所藏慶筵圖軸後』는 그림에 대한 발문이다. 이 발문의 제목에 나오는 子澄은 朴漉(1542~1632)의字인데, 그는 嘯臯 朴承任의 아들로써 오운과 오랜 친구였다. 오운이 박승임의 문집을 교정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였을 것이다. 이 그림은 박록의 조부인 朴珩의 회갑연을 그린 것이다.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과 참석인원을 정확히 나열하였고, 특히 그림에 대한 묘사가 매우 뛰어나다. 1608(戊申, 당 69세)년에 썼다.

『書朱子文錄後』는 주자의 문집에서 일부를 베껴 쓰고 책으로 만든 것이다. 오운은 처음에 관본 『朱子大全』을 구입하여 읽었으나 난중에 망실하고 난후에 朴漉(1542~1632)에게 90권 전질을 빌려 읽었으나 오래 빌릴 수도 없고, 이황이 주요 내용을 정리한 『朱子書節要』가 집안에 있으므로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封事나 奏筭, 雜著, 序記類 등은 후학들에게 절실한 것이고, 疏筭에서는 더욱 선생의 애국우군의 정과 경륜의 대략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약간을 등사하여 상중하 3책으로 만들어 책상위에 놓았다.³⁷⁾ 이처럼 이 서문에서 오운이 『朱子大全』의

36) 『竹塢先生文集』卷3, 『韓歐蘇詩卷跋』, “第以歲久磨綻 乃手自粘楮 劈爲兩冊 粧以色絹.”
37) 『竹塢先生文集』卷3, 『書朱子文錄後』, “憶在平昔 購得館本朱子大全讀之 未幾蕩失於兵禍 自寓龜城 借閱朴子澄所藏全帙 總九十餘卷 恨不可以久假 竊念知舊門人問答書札 有退溪先生所選節要目 今家藏者尙多 易於求見 至若封事奏筭以及雜著序記之類 并切於後學 而疏筭則尤可見先生愛君憂國之意 經綸大略具焉 …(中略)… 就其中臆寫若干篇 粧成上中下三冊 常展之案上.”

일부를 등사하여 책으로 꾸며 보관하게 된 과정을 알 수 있다.

3.2 잡저

문집의 권4에는 行蹟, 墓碣銘, 墓誌, 墓表, 雜著 등을 수록했는데 雜著를 제외하고는 개인에 대한 기록이다. 잡저에서 『圃隱先生文集誤字校正』과 『東國地理志』가 주목된다.

『圃隱先生文集誤字校正』은 내용상 서발에 속하지만, 특이하게도 교정을 실시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직 교정한 내용만이 실려 있다. 이런 이유로 잡저에 수록하였을 것이다. 이를 보면 오운이 교정에 있어 전문가의 수준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⁸⁾ 오운이 이 교정을 마친 것은 그의 나이 75세(甲寅)였다. 이 해에 『東史纂要』를 改撰하여 완성하고 韓百謙과 그 내용에 대해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후 세상을 버리기까지 도서의 편찬이나 교정에 대해 시도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교정 작업이야말로 오운의 도서 관련 작업에 있어서 대미를 장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東國地理志』는 『東史纂要』 권9의 地理志의 서문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을 문집에 그대로 전재하였다. 이것은 후손들이나 최홍벽이 문집을 재판집하는 과정에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잡저로 분류한 이유는 오운이 이것을 지리지의 서문으로 확실히 명명하지 않았으며, 뒤에 한백겸이 보낸 『韓久菴東史纂要後叙』를 수록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연구는 竹牖 吳澐(1540~1627)의 개인 문집인 『竹牖先生文集』을 검토하여 간행 경위와 구성 및 체재를 밝힘으로써 이 문집의 가치와 의의를 조명하고자

38) 김순희, “竹牖 오운의 『圃隱集』 교정에 대하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참조.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오운은 일평생동안 도서와 더불어 살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도서를 애호하였으며, 교정과 편집, 편찬과 간행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오운은 자신이 지은 詩文의 일부를 『栗溪亂稿』라는 제목으로 남겨 놓았는데 이를 저본으로 후손들이 편집하여 사후 156년 만인 1783(癸卯)년에 『竹圃先生文集』을 간행하게 되었다.

오운의 문집이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오운이 생전에 직접 정리한 『栗溪亂稿』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운은 63세 되던 해인 1601(辛丑)년에 영천으로 돌아와 거주하며 틈이 나는 대로 도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栗溪亂稿』 2권을 정리하였다. 오운은 도서전문가답게 문집의 정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오운은 시를 수록하면서 시대순으로 배열하였으며, 기록이 필요한 내용은 狹注로 부기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小字狹書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것은 오운이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오운의 사후 『栗溪亂稿』는 집안에 대대로 보관되어 전해졌으나 후손들이 문집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유고가 완전히 모아지지 못함을 애석히 여기다가 7세손인 吳命顯이 본격적으로 문집의 편찬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오명현은 문집을 간행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역시 7세손인 吳司重이 다시 한 번 누락된 자료를 수집하여 오운의 문집을 정리하였다. 오사중은 고창오씨의 世稿인 『牟陽世稿』를 편집한 인물이기도 하다. 오사중은 편집을 마치고 李級과 李守定에게 문집의 서문을 부탁하여 淨寫해 놓았으니 이것이 榮川本이다.

이후 영천본은 문중에 보관되어 오다가 다시 한 번 교정과 산정의 작업이 시도되었다. 6세손 吳厚相이 蠹窩 崔興璧에게 刪定을 부탁하여, 최흥벽이 영천의 문중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최흥벽은 문집의 출간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문집의 산정을 완성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 최흥벽에 의해 『竹圃先生文集』은 완전하게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오운의 8세손인 吳慶鼎이 최흥벽이 산정한 문집을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 1824년이다. 오경정은 최흥벽의 발문과 韓光善의 발문을 첨부하여 간행함으로써 오운의 문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甲申本이다.

서지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오운의 문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序跋이다. 오운은 3개의 서문과 11개의 발문을 남겨 놓았는데, 이를 보면 도서편찬가로서의 오운의 진면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리고 雜著에서도 도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오운의 문집 『竹牖先生文集』은 조선조 문집 간행의 과정을 적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선조의 유문이 있으면 먼저 종중에서 문집의 간행에 대한 공의가 있게 된다. 이때 실제로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과 정리, 편집을 담당하는 자가 선정된다. 사실 문집의 간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오운의 문집에서는 오사중과 최홍벽이 이 일을 맡았다. 그리고 이를 저본으로 하여 간행을 추진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경제적 부담이 있는 일이므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간행을 완성해야만 세상에 알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편집과 간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다. 이 문집도 오명현이 간행의 뜻을 갖고 편찬을 시도한 지 시간적으로는 70 여년이 소요되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 3명이나 되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현전하는 조선시대의 문집들은 제각기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문집의 편집과 간행과정을 검토하면서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吳澐 著. 『竹牖先生文集』. 木版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824.
_____. 『東史纂要』. 木版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614.
李穡(高麗) 著. 『牧隱集』.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李載亨 著. 『松巖集』.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 未詳].
- 김순희. “오운의 『東史纂要』의 서지학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393-420.

- _____. “오운과 『咸州志』.” 『書誌學研究』 제29집(2004. 12). 476-498.
- _____. “竹牖 오운의 『圃隱集』교정에 대하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337-359.
- _____. “죽유 오운의 학문과 저술세계.” 『書誌學研究』 제41집(2008. 12). 473-493.
- _____. “이우의 『송재선생문집』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45집(2010. 6). 215-233.
- 김영숙. “蠹窩 崔興璧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학논집』 제39집(2009). 65-96.
- 鄭羽洛. “吳澐의 詩世界에 나타난 興과 浪漫主義的 性格.”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세계』, 역락, 2007. 163-203.
- 조규익, 이성훈, 박동욱. 『고창오씨 문중의 인물들과 정신세계』, 학고방, 2009. 311-337.